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천 방안

목 차

I. 왜, 창조경제인가?

II.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천방안

1.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 대책
2. 시급히 실천해야 할 중·장기 대책

III.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천의 요체

IV. 건의사항 :

인천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약 26만개를 위한
재정 투자 2조3,000억원 건의

2013. 12. 17

대표이사 송 희 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Songdo Global University(SGU) Foundation

I. 왜, 창조경제인가?

- 대한민국경제 지난 45년간 ‘모방기술’ 주도 제조업경제로 성장
- 최근 중국·인도의 급성장, 대한민국 ‘모방기술’ 주도 제조업경제 위기에 직면: 한·중 기술격차 4-5년 (산업연구원)
- 대한민국 대기업들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
“새 성장 엔진 찾아라” “앞으로 뭘 먹고 사나”
- ‘모방기술’ 주도 제조업경제 한계 봉착
- ‘모방기술’ 주도 제조업경제 ‘원천기술’ 주도의 “창조경제”로 전환: 절체절명의 시급한 당면과제
-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핵심 주력산업:
 - 원천기술 주도 첨단산업: BT, IT, NT, 에너지, 환경, 항공우주
 -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의료, 관광, 금융, 회계, 물류, 컨벤션, 법률
 - 문화·예술창조산업: 미술, 디자인, 패션, 음악, 영화, 공연, 건축

II.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천방안

“가장 시급한 정책실천의 요체, 국민의 이해와 합의도출”

1.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대책:

“가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의 요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모방기술’ 주도 중·화학 제조업 경쟁력 상당기간 유지 필요: 대기업 노사문제 해결이 관건
-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적극 전환 유도: 관련규제 혁파
- 중소기업 국내투자 활성화 유도: 기업환경 적극 개선
- ICT를 기존 제조업에 적극 활용 유도
- 교육, 연구개발(R&D), 의료, 관광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혁파, 소규모 재정투자로 대규모 해외 및 민자유치
- 중소기업의 창의성, 벤처기업 활성화의 요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여성의 사회참여 적극 권장: 새로운 성장동력
- 고령인력의 사회참여 적극 권장: 새로운 성장동력

2. 시급히 실천해야할 중·장기 대책

“대한민국 대학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렛대의 받침목(Fulcrum) 필요”

가. 우리나라 대학교교육과 연구개발(R&D)의 문제

○ 대학교교육의 문제

-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교육에 치중
- 창의성 교육과 창업분위기 조성 열세
- 미국과 이스라엘, 창의성 교육과 창업분위기 조성 세계 최우수

○ 대학교 연구개발 (R&D)의 문제

- 대학교 연구개발능력, 경제발전 수준에 크게 미달
- 세계 최고 연구과학자 약 6,300명(미국 ISI 보고서)
 - 미국거주 약 4,100명
 - 영국거주 약 480명
 - 일본과 독일거주 각각 약 260명
 - 한국거주 4명에 불과
- (포항공대 1명,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KAIST 1명)

○ 대학교의 핵심과제: ‘거버넌스’의 문제

- 총장: 직선제, 임기 4년
- 학장 및 과장: 내부인사로 충당, 임기 2년
 - 창의적 교육과 R&D 능력 향상에 큰 걸림돌
 - 신성장동력 창출과 성장잠재력 향상에 큰 걸림돌

나. 인천송도 세계 최우수 “교육 및 연구개발(R&D)허브”로 육성

1) 송도글로벌대학교의 조성

○ 역점 전공분야

- ‘원천기술’ 첨단산업 관련분야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분야
- 문화·예술창조산업 관련분야

○ 학생구성

- 한국학생 40%, 미국 및 EU학생 30%, 아시아 및 기타 30%
- 한국학생 영어 외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 1개의 제2외국어 능통 필수

○ 10여개의 선진국 우수 대학교 유치

<기 유치된 4개 대학교>

-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 2012년 3월 개교
- 미국 조지메이슨 버지니아 주립대, 2014년 3월 개교 예정
- 미국 유타대학교, 2014년 3월 개교 예정
- 벨기에 겐트대학교, 2014년 9월 개교 예정

<접촉중인 7개 대학교>

- 러시아 상트페테르 콘서버토리, 2015년 9월 개교 예정
- 라스베이거스 관광대학(미국 2위), 2016년 9월 개교예정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미국 39위)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미국 39위)
-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미국 49위)
- 미국 노텔담대학교(미국 18위)
- 네덜란드 호로닝엔대학교(세계 89위)
- 중국 칭화대학교 (중국 2위)

○ 기 유치된 3개 비영리연구소

- 미국 샌디에이고의 설크 생명과학연구소(JCB), 2008년 유치
- 미국 유타대학의 생명과학연구소(DDS), 2009년 유치
- 미국 스토니브룩 주립대의 정보통신연구소(CEWIT), 2010년 유치

○ 최첨단 영리기업연구소 약 30개유치 계획

- 운영비는 입주연구소 자체부담
- 연구소 건물과 기본시설 한국정부 부담, 임대

○ 비영리 대학교 연구소와 영리기업연구소가 공존하는 “지산복합체 (知産複合體)” 캠퍼스 조성

○ 송도글로벌대학교는 인천 송도를 세계의 최우수 “교육 및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2) 송도글로벌대학교, 연구중심대학교(Research University)로 육성

○ 우리나라 대학교,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

- 미국과 EU의 경우, 대규모 기업연구 자금이 “연구중심대학”에 집중되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자체연구보다 대학연구 의뢰가 유리하기 때문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학연구 의뢰보다 자체연구를 선호, 이는 대학교 연구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

○ 송도글로벌대학교, 선진국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실천방안

- 최첨단 영리 기업연구소를 약 30개유치 필요
- 송도글로벌대학교는 최첨단영리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해 Graduate Research Center(GRC)를 설립, 연구시설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
- 30개의 최첨단 기업 연구소를 통해 최우수 대학원생과 최우수 교수 확보 가능
- 선진국 명문대학교를 유치 생명공학분야 및 정보산업 박사과정 대학원을 개설,

○ 송도글로벌대학교가 국내 주요 대학교들과 적극적 협력, 국내대학 연구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렛대의 받침목(Fulcrum)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III.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천의 요체

1. 국민의 “이해와 합의 도출”: 정책실천의 기본여건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의 기본여건
3. “대학교육개혁”: 조기 실천해야 할 중·장기 대책

- 대학교육 개혁의 핵심과제: 대학교의 “거버넌스” 개혁
-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과제: “대학교육의 글로벌노출”
- “대학교육의 글로벌 노출”: 송도글로벌대학교의 육성

IV. 건의사항: 인천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약 26만개를 위한 재정투자 2조 3,000억원 건의

- 총투자규모: 12조6,000억원
 - **국비재정 투자(추가): 2조3,000억원**
 - 시비 및 민자: 3,000억원
 - 외국인 직접투자: 10조(이미 추진 중)
- 직·간접 “일자리”창출 약26만개

1. 송도글로벌대학교설립: 학부학생 10,000명, 대학원 연구인력 3,000명 수용

- 총투자 규모: 1조1,000억원
 - **국비재정 투자(추가): 3,000억원**
 - 시비 및 민자(추가) : 3,000억원
- 유명외국 대학 10개와 외국기업연구소 30개 유치
- “일자리”창출 약2만개[직접: 1만개(건설기간 중 직접 5,000개 포함), 간접: 약1만개]

2. 영종공항복합도시개발 3개 사업 (미단시티, IBC II, 영종복합리조트)

- 총투자 규모: 약12조원
 - **국비재정 투자(추가): 2조원**
 - 외국인 직접투자 약 10조원 추진 중
- “일자리” 창출 약23만개
 - 직접: 약3만개, 간접: 약6만개
 - 건설기간 중 직접: 약14만개(간접은 포함하지 않았음.)

3. ‘국제병원’ 설립

- 총투자 규모: 약4,000억원
 - **국비재정 투자(추가) 필요 없음**
- “일자리” 창출 약1만2천개(직접: 약4,000개, 간접: 약8,000개)

의료 교육 서비스업 글로벌화 전략

2013.12.17

의료, 교육 서비스업 글로벌화 전략

2013. 12. 17

부총장 김 문 겸
연 세 대 학 교

① 교육의 인바운드 국제화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필요: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통한 아시아 교육허브 구축: 인바운드 국제화 전략
- 100% 영어교육환경과 국제적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

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비용구조 불가피
- 기준요건을 갖춘 교육특구 내 국내대학 정원 및 등록금 규제 완화
- 외국대학 국내분교와 국내대학의 역차별 해소
- 학사개편에 따른 등록금 변동은 인상률 계산에서 제외
- 9월 입학 허용 대상 확대

③ 경쟁력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강점 활용한 의료허브 구축

- 경쟁력 있는 국내 병원의 진출을 지원하여 동아시아 의료허브 구축
- 해외 환자 유치에 경험이 많은 국내 의료기관 지원
-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술 보유 필수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된 연구 및 교육 복합 의료기관으로 시너지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GMTC(Global Medical Training Center) 설립 지원

○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고객 유치 활성화 지원

2013. 12. 17

대표 김 봉 기
인 천 의 료 재 단

제안 건의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GMTC(Global Medical Training Center) 설립 지원

제안	"GMTC(Global Medical Training Center(가칭)" 구축, 운영을 통한 국내의료기관 의료기술 고도화 및 GMTC를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 달성
제안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의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술기교육이 어려워짐 ○개복수술에서 점차 복강경 수술등으로 수술패턴이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상황을 모델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 ○해외 의료기관역시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에 대한 학습 의지가 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센터 역할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국제공항과 국제항이 있는 인천 송도에 정부가 지원하고 의사단체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GMTC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의사와 병원을 매개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함
국내외 유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MISC(Minimally Invasive Surgical Cente) 운영 ○ IRCAD France (European institute of telesurgery) ○ IRCAD Taiwan (Asian institute of telesurgery) ○ IRCAD Brazil (American institute of telesurgery)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과 전공의 및 전임의에게 필요한 술기교육의 표준화 ○ Competence에 이를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설정 ○ 국내 의료기관은 물론 해외 의료기관에도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 훈련 모델 개발 ○ GMTC를 통한 의사, 병원간 연계를 통한 외국인 환자의 안정적인 의뢰처확보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GMTC 설립,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자금 지원) ** 자금의 경우 ODA 자금 또는 EDCF 자금등 해외 보건 의료 취약국가 대상 지원 자금을 활용 하거나 디지털 병원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활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우수한 외과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 기술 고도화 지원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의료 술기에 대한 국민적 TRUST 제공 ○해외 의료진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한 국내 우수 의료기술에 대한 전파 및 병원과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 GMTC를 기반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 → 국내 의료 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기여

<관련 참고 자료>

1. About MISC



- 1993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National University Hospital)에 의해 설립
- 센터 핵심은 최소침습수술을 아시아에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 첨단 기술 장비와 고급 과정의 커리큘럼을 통해 복강경 수술 관련된 첨단 기술 교육을 제공

2. MISSION

- 다양한 수술분야에 최소 침습 내시경 수술을 홍보하고 조직화
- 환자들에게 뛰어난 케어와 서비스 제공
- 앞선 기술의 최소 침습 수술을 시술,교육, 그리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서의 리더쉽 확보

3. FACULTY

DIRECTOR	STEERING COMMITTEE	
Davide Lomanto	Advisor	Abu Rauff
	Cardiothoracic Surgery	CN Lee, John Tam
	Colorectal Surgery	C Tsang, D. Koh
	Endocrine Surgery	WK Cheah, C. Tan
	General Surgery	D Lomanto
	Hand & Reconstructive Microsurgery	A Lim, YP Peng
	Hepato-biliary Surgery	KK Madhavan, Stephen Chang, I Shridhar, V Lee
	Neurosurgery	N Chou, TT Yeo
	Obstetric & Gynecology	PC Wong, YF Fong, J. Low
	Orthopedic Surgery	K Satku, HK Wong
	Pediatric Surgery	K. Prabhakaran, D Loh
	Plastic Surgery	T.C. Lim
	Obesity Surgery	Ti TK, D Lomanto, J So, Asim Shabbir
	Urology	D Consigliere, Kesavan
SECRETARIAT	Vascular Surgery	P. Robless
Emma Suleiman	Flexible endoscopy	Lawrence Ho, C Khor

4.Training center



■ 세계적 수준의 세미나, 워크샵, 트레이닝 장소로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료분야의 지식, 기술,정보의 교환에 적합

- 대체의학(Allied Health)
- 마취학(Anaesthesiology)
- 치과학(Dentistry)
- 일반진료(General Practice)
- 소화기 내시경(GI Endoscopy)
- 의료 (Medicine)
- 간호학(Nursing)
- 수술(Surgery)
- 비뇨기과(Urology)

5. Training Center - Facilities



- 끝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동북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은 8년 연속 우수 공항으로 선정
-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여행객의 환승 시 4시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연간 50만 명
 - 2012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고객은 총 650만명
- 의료관광 환승투어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인천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반경 5km 이내, 최대 20km 범위 내에서 83개의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부근 인하국제의료센터 2012년 11월 오픈)
 -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중심으로 One-Hour Medical Service System이 구축되어 있음
- 가격 경쟁력 측면

진료내용	미국	인도	한국	인도비교	미국비교
위내시경	100만원	15만원	4만원	25.00%	3.30%
대장내시경	160만원	33만원	5만원	14.80%	3.00%
맹장수술비	900만원	180만원	30만원	16.70%	3.30%
용종절제술	270만원	54만원	14만원	26.70%	5.30%
심혈관조영술	430만원	86만원	14만원	16.70%	3.30%

(자료: 미국, 인도, 한국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건강보험공단수가, 2009)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천공항 환승 고객 연간 650만명중 4시간 이상 체류고객 50만 명의 단 3%에 해당하는 2만2천명만이 환승투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로 유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됨
- 메디컬 코리아 홍보안내 서비스 개선책 미흡
 - 공항 내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 전무

□ 구체적인 사례 예

환승투어

▶ 환승투어 상품이란 환승을 위해 공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무료 관광 상품으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미트레블, 하나투어가 환승투어 담당 여행사로서 서울시투어 등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2013년 4월 한)

- 외국인을 위한 인천공항 환승투어의 주요코스
 - 서울지역 : 경복궁, 민속박물관, 인사동, 청계천, 창덕궁, 인사동 등
 - 인천/경기지역 : 월미도 공원, 차이나타운, 용궁사, 비무장지대(DMZ) 등
- 환승투어의 상품 가격대는 약 20불~50불 사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료관광 상품 추가 이용 시 약 250불~400불의 추가수익이 기대

□ 건의 사항

1. 인천공항 CIQ 지역 및 환승데스크 내 메디컬 홍보 Zone 설치

- 공항 내 미팅 포인트 마련을 위한 의료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
- 의료관광 홍보관 및 체험코너 운영
- 의료관광 잠재고객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상담공간 제공
- 홍보물배포 및 홍보 영상물 상영을 통한 홍보기능

○ 사업내용

- 메디컬 홍보관 설치 및 운영 비용 : 10억원(총 2개소 설치, 운영)
※ 부가세 포함 금액, 1년 단위 예산

메디컬 홍보 ZONE 위치	외국인 의사 자격증 소지자(언어별 구분)
탑승동 1개소	4명 (상담안내원 : 영/러 2, 일/중 2)
여객동 1개소	4명 (상담안내원 : 영/러 2, 일/중 2)

- 홍보비용 : 10억원(광고, 인쇄, 영상물제작, 프로모션 홍보비 등)
- 예산확보 국고 20억 지원

2. One-Hour Medical Service System 의료상품 개발 홍보

(공항 도착 후 한 시간 이내 병원 도달하는 일종의 포로세스)

주요 개발 예정 의료관광 상품

-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한 의료기술 (식사하지 않고도 검진할 수 있는 상품)
- 한국의 주요 의료수가 경쟁력
- 건강검진, 의료사고 없는(피부미용, 스킨케어, 스켈링 등) 상품 개발

3. 사업 예산 소요

- '14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20억, 15억, 20억 소요
- 정부 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통한 채널 확보

3. 기대 효과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증가

○ 인천공항 환승고객은 연 650만명 (2012년 한국공항공사)

구분	4시간이상 환승고객	환승투어 이용객 총 합계	환승투어 이용객	
			순수 관광투어	의료관광 유치 목표
2013년	55만명	3만명(100%)	2만7천명 (90%)	3천명 (10% 점유)
2014년	60만명	10만명(100%)	9만명 (90%)	1만명 (10% 점유)
2015년	65만명	15만명(100%)	13만명 (87%)	2만명 (13% 점유)

- 의료관광 수익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증가
(1인당 의료수가 약 25만원~40만원 가량의 수익 발생)
- 국가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대
- 650만명의 환승고객 대상 홍보효과 및 'Medical korea'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인천국제공항을 '건강공항' . 'Medical Hub Airport'로 브랜딩

- 메가트렌드 One-Hour Medical Service System 효과로 연관사업 부상
- 최초로 민.관 합작 [도시-공항-환승투어]의 브랜드 정립 기회

□ 인천을 '건강도시' . 'Medical Hub CITY'로 브랜딩

- 한국의 의료관광'Medical Hub korea'홍보 부각
- 인천을'건강'을 테마로 하는 이미지 창출
(2012년 WHO 가 인천을 건강도시로 선정)
- 2014년 아시안게임 행사 이후 인천을 건강 도시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 기타

- 전국의 국제공항(김포, 청주, 대구, 김해, 제주)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의료관광 홍보 우선 시범공항으로 선정하여 모범 의료관광 공항의 사례로 부각

—끝—

인천 서비스산업과 미래도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교수 백 승 국
인 하 대 학 교

2013. 12. 17

인천 서비스산업과 미래도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백승국(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 대학원 문화경영학과 교수)

UN에 따르면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80% 이상이 도시 공간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을 만들기 위한 경제성장의 모티브와 원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경제 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 도시로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미래 비전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수치는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무역규모는 세계 9위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에 26위이고, 출산율 1.24명으로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하이코, 50대 60대의 생산 인구비중이 40%의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사회구조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따라, 서비스산업 기반의 미래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가능한 모멘텀을 요구하는 산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컨대 의료, 교육, 관광이 융합된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모멘텀이 강한 산업입니다. 둘째, 서비스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변화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미래의 도시모델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창조적 혁신과 창조적 활동을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이 서비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외적 명분과 실리적 명분에 대한 논리적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특히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정치적 혹은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닌, 창조경제의 실천 모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지리적 장점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관이나 벤치마킹 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산업이 아닌,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송도라는 도시공간에서 의료, 교육, 관광의 융복합적 접근은 적합한 전략입니다. 즉 의료, 교육,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창조적 체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것은 매력적인 컨셉입니다. 그 이유는 제한된 공간에서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의료, 교육, 관광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도록 서비스하는 도시 공간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브랜딩 차원에서 관광과 컨벤션 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킬러콘텐츠입니다. 관광과 컨벤션은 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서비스산업의 실질적인 일자리 조성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MPR 차원에서 관광과 MICE 산업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살아 움직이는 브랜딩 전략 도구입니다. 국제회의와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지인들은 그 도시의 독특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끊임없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자신이 체험한 도시 이야기를 On/Off 라인의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전파된 도시의 경험과 추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도시브랜딩의 모티브입니다.

하지만 관광콘텐츠를 통한 인천의 도시브랜딩 전략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 관광객 1천만명중에 인천을 방문한 사람은 8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7.7%만이 인천을 잠시 둘러보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7.5일의 체류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인천에 머무는 기간은 1.7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도시 인천이 아닌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의료, 교육, 관광의 서비스산업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체험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의료 체험, 교육적 체험, 유희적 체험, 미학적 체험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공간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Pine과 Gilmore가 주장하는 체험경제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감각에 호소하고 가슴에 와 닿으며, 자신의 정신에 자극을 주는 제품, 콘텐츠, 마케팅을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의료,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합니다.

따라서 의료, 교육, 관광의 서비스산업을 체험콘텐츠와 도시브랜딩 차원에서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사업화 방안과 킬러콘텐츠 개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이 지향하는 서비스산업의 모델이 Fast Follower로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역동성을 주고, 지역 발전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길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부가가치 전략관광산업 육성의 견인차 IFEZ

2013. 12. 17

관광사업본부장 민경석
인 천 도 시 공 사

고부가가치 전략관광산업 육성의 견인차 IFEZ

1. 관광산업,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필요

-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작년 첫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1,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13년 목표 1,160만명)
 - * 중국인 관광객 '12년 283만명 → '13년 430만명으로 약 52% 증대
- 외형적 숫자로만 보면 일본('12년 680만명), 스위스('12년 830만명)를 앞지르는 숫자
- 그러나,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일본, 중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도 140개국 중 25위로 일본 14위, 홍콩 15위에 비해 열위
- 일례로,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지출액은 2,100달러로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지출액 7,10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
 -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이 주로 화장품이나 의류 등 저가 쇼핑에 치중돼 있고, 문화나 오락 등 고급 소비 행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기인
 - 지난 10월 중국 여유법(여행법)을 시행 이후 방한 중국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저가 패키지 관광이 줄고 FIT 중심의 고부가가치 관광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으리라 기대

2. 고부가가치 전략관광산업 육성의 견인차, IFEZ

- 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 재차 강조

- 관광업계의 큰 손으로 부각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 다수**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처럼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가 한 장소에서 해결되는 **복합리조트, MICE, 크루즈,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전략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
- 송도, 영종, 청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고부가가치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
 - **탁월한 글로벌 접근성**(세계적 수준의 인천공항 보유, 비행 2시간 내 100만명 이상 도시 41개 등) 및 **배후시장**, 주요 기반시설 구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글로벌 수준의 정주환경** 보유
 - * 국내 어느 지역보다 **중국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기에 유리**
 - 그 외, 2016년을 목표로 건립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 가능
 - * '12년 인천 입항 크루즈 8척 → '13년 95척(20만명 이상). 크루즈 원년의 해
 - * 급성장 중인 **크루즈 관광**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인천은 **영종지구**에 **한국형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로 통해 **싱가포르나 마카오에** 집중돼 있는 **중화권 관광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인바,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생산유발효과는 연평균 6.8조~12.8조, 부가가치 3.3조~6.5조, 고용인원 연 2.9만명~5.5만명, 지급임금총액 연 1.3조~2.5조 추산
 - *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확충, 내수 진작' 1석 4조의 효과
- 한편, 지역 MICE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컨벤시아 일대 MICE복합지구**를 조성할 통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랜드마크化** 필요

- 복합지구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중('13.5월)
 - * 관광특구에 준하는 세제혜택, 관광기금 등 인센티브 제공(컨벤시아 잔여부지 개발 등 주변시설 확충에 유리)
- 컨벤시아 일원에 대한 **MICE복합지구 지정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협조 필요**
- 향후 **영종 복합리조트 완료 시, 송도컨벤시아와의 역할분담**(송도 도심형↔ 영종도 리조트형)을 통해 **지역MICE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송도는 **도심형 컨벤션센터**로 기획된 취지에 맞게 GCF사무국, WB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 연계 국제회의 및 중·소규모 전시회 중심 운영
 - 영종도는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등과 연계 **회의와 레저, 휴양**이 윈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리조트형**으로 운영
- ※ **싱가포르, 홍콩·마카오 모델을 적용, 2거점 체제로 지역별 강점 고려 역할·기능 분담**

3. 관광사업의 새 지평, 문화관광사업에 주목해야

- 최근 외래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한류열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관광은 문화와 결합해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 더 이상 문화사업과 관광사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공사는 **문화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함께 '**음악도시 인천**'을 선포하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K-culture festival, 힐링&캠핑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 대규모 아웃도어 페스티벌이 가능한 달빛축제공원 등 매력적인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송도는 '음악도시 인천'의 양 대 거점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전진 기지로서 기능하게 될 예정임

- 이와 관련, 공사는 경제청이 구성한 '창조문화컨텐츠도시TFT'에 참여 하여 '(가칭)송도아트펜타곤* 구성', '공연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송도아트펜타곤 : '달빛축제공원, 송도컨벤시아, 트라이볼, 컴팩스마트시티, IFEZ아트센터' 5개 문화거점을 벨트화, 연계·교차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상품화

- 송도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느냐가 송도가 문화관광사업의 전진기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임

- 향후 정부가 송도를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시키는데 있어 문화관광사업 관련 프로그램 예산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봄

4. 기 타

- 쇼핑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시내면세점의 송도지역 유치 및 활성화 필요

* 公社는 인터파크가 송도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공모에 참여토록 유도(당초 인터파크는 경주지역 사업권 신청을 검토)

- 국제적 감각에 부합하는 다양한 먹거리 관광코스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2013. 12. 17

투자유치본부장 이 승 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신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 Incheon Free Economic Zone)이 2003년 중앙정부에 의해 지정된 이후 올해로 10년이 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개발, 관리를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無에서 有를 창출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그동안의 발자취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사가 되어온 것이다.

10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약 45%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 및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후로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누적액은 총 50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162억 달러)에서 12.7%(20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경기도를 앞지르는 성과를 지난 해 거둔 바 있다. 특히, 민선5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36억 7천 6백만 달러에 달해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72%를 상회하고 있으며, 3년 연속 경제자유구역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산업별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 앵커기업 및 기관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본을 제치고 환경부문의 세계은행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본부인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필두로 세계은행(WB : World Bank),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 :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유치도 성공하였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날개를 달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UN 및 국제기구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 세계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별 허브화 전략도 주요 글로벌 앵커기업의 유치 성공에 따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허브조성을 목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베르나바이오텍, 동아제약 등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업들을 유치하여 우리나라 바이오클러스터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또한, IT허브 및 인프라조성을 위해 애플, CISCO, IBM 등 다국적기업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등지를 틀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채드워 송도국제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청라 달튼외국인학교가 개교하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대학 뉴욕주립대 스톤브룩의 분교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국내외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가 순차적으로 개교할 계획이다.

국내대학으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등이 개교하여 산업체,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능대학교가 개교를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 본사이전, 롯데쇼핑타운 건립, 신세계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보잉사 운항훈련센터, P&W 항공엔진정비센터, 코오롱 그룹, 대우엔지니어링, 현대백화점, 이랜드 그룹, 형지그룹 유치 등도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이 자국개발모델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모델을 에콰도르에 수출한데 이어 베트남으로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브랜드의 세계화를 구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 1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어떤 모습으로 개발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물어본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대한 같은 지향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4% 이하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여, 제조업 중심 발전 전략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교육, 의료, 유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강화하여 국가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루면서,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두바이 등 경쟁도시들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 등 복합적 서비스산업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입주해 있는 UN 및 국제기구를 기반으로 제네바와 같은 국제기구 도시화를 추진하고 교육, 의료,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산업, 관광, R&D 등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영종 및 청라국제조사는 향후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문화 및 관광레저 허브조성과 인천공항을 활용한 글로벌 국제물류 허브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융타운 및 글로벌 유통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넘어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